

“스님 법문 있어 더 좋아”

월간 '불광' 500호 대담
스님들 공개방송 북콘서트
다양한 행사에 참가객 환호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간 동안 다양한 컨퍼런스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첫 무대를 장식한 것은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었던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해자스님. 지난 3월24일 열린 선묵스님 대중법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특설무대에서 불교텔레비전 '가피' 공개녹화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1시에는 발간 500호를 맞은 월간 <불광> 특별대담이 특설무대에서 마련됐다. 이미경 칼럼리스트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1974년 창간호에서 밝힌 순수불교선언을 낭독했다. “물질이 법람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광덕스님의 불교선언은 “불교가 기복적 요소를 탈피해 지식인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잘 보여준 불광 창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지식인들이 급격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월간 불광은 정법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전화하 한 대를 마련해 시작된 월간 <불광>이 500호를 맞이까지의 여정이 곧 현대불교 성장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다.

3일째인 26일에는 국내 최대 박사학위 소유자인 월정사 자연스님이 '스님의 공부법'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이어 오후에는 마가스님이 '기화만사상'을 주제로 BBS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또 해군법사 농산스님이 '영화로 보는 불교심리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무대행사는 27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공연과 대만 불광산사 스님 초청 법문이 이어졌으며,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대중법문까지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발품을 팔면서 구매에 바쁜 불자들도 잠시 쉬면서 스님들의 안심법문에 귀기울였다.

‘모던붓다’ ‘30만원전’...틀 깨고 격조 높였다

■ 현대불교미술가 총출동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꽃은 ‘붓다아트페스티벌’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며 “자신을 알리는 기회”다. 분야는 주로 조각과 회화. 올해는 디자인 등 응용미술분야도 다수 참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국제박람회는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 문화예술적 진면목을 조명하는 자리”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의 예술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의의를 밝혔다.

위상 높아진 붓다아트페스티벌 전통과 현대예술의 융합과 조화 100여명 미술작가 가까이 동참 “행복한 체험...내년이 더 기대”

올해 붓다아트페스티벌은 기획전과 본전시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기획전은 백승호, 이완, 최두수 작가가 참여한 현대미술특별전 ‘모던붓다’전과 청년작가 10인의 청년불교작가전,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의 전통장인초대전, 그리고 예술작품을 향유하지는 취지로 마련된 ‘30만원전’이다.

본 전시에는 서철교 불교조각원장을 비롯해 동휘스님, 무여스님, 이재용, 이재서, 주성진, 호종현, 안길상 등 100여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첫부터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한 서철교 작가는 “대중에게 알릴 창구가 있다는 것이 소중한 기회”라며 “작품전시회에 전문가나 지인들이 주로 오지만, 불교박람회는 일반인이 관람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올해 처음 참여한 무여스님은 “월간 <해인>지에 기고한 일러스트 작품과 북디자인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다”며 “올해 작품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 놀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불교미술작가들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불교박람회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붓다아트페스티벌이지만 올해는 메인전시로 자리매김했다. 경남 양산에서 왔다는 한 비구니 스님은 “전시실 한국 전체가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준다. 다양한 작품과 불상, 조각을 접하면서 불교미술을 새롭게 볼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4년전 참가했다가 올해 다시 참여했다는 최용대 경덕불상 대표는 “전시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감사한 마음이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전했다. 경덕불상은 칠보로 불상이나 소품을 장식하는 공예 업체다. 전반적인 호평과 더불어 전시실 조명이 부족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미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특히 불교조각가 오재현 씨의 부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작품을 감상했다.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 덕분에 관람객 전원이 지나나 다름없는 손놀림으로 촬영에 임했다.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률적인 조명을 배치하다보니, 작품의 특색을 살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전성철 작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작품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 불교박람회는 작가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명 부분을 다양화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과 미래의 문화가 만나며 교류하는 곳이 바로 불교박람회다. 참여 작가들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선보이고,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불교미술의 발전상을 만나게 된다. 특히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릴 기회를, 일반인들은 불교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붓다아트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불교박람회의 특색있는 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남긴 큰 성과로 꼽힌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사진 김형주 신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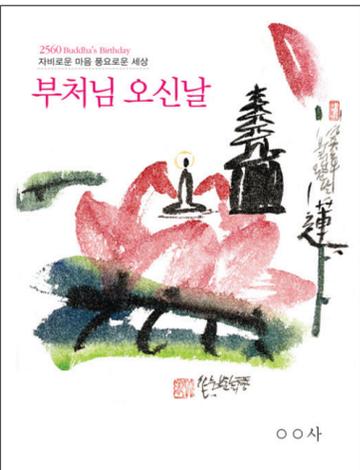
‘불사’를 대주제로 한 이번 불교박람회에는 작가들이 다양한 불상들을 내놓았다.



서철교 작가는 흙으로 빚은 미완성의 불상을 직접 가져와 불상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초파일 행사를 치를 때마다 각 사찰에서 만들어 오고 있는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미있는 읽을거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담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용 팸플릿을 대신할 수 있는 기념책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책자 주요내용
불교법요식순 | 한글 반야심경 | 불족 발원문 | 어느날,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연등불을 밝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관불의식은 왜 할까요? | 육법공양문

부수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600부	700부
가격	80,000원	160,000원	240,000원	320,000원	400,000원	470,000원	540,000원
부수	800부	900부	1,000부	1,500부	2,000부	2,500부	3,000부
가격	610,000원	680,000원	750,000원	1,050,000원	1,350,000원	1,600,000원	1,850,000원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전화번호, 불족법요식순 등을 실어드립니다.

내일을 돌아보는 지혜, 그 세 번째 이야기
생각의 나무 3이 출간되었습니다!



· 기획·제작 | 스튜디오 돌 · 정가 12,000원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주로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알기 쉽게 만화로 풀었습니다. 부디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삶을 돌아보고 진리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 문의 : 설법연구원(부설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02)720-0824